

베트남 대입에 TOPIK 반영

〈한국어능력시험〉

위상 높아진 한국어, 입시까지 접수

해외서 한국어능력시험 공신력 인정
홍콩 이어 두번째로 해외대입 활용
3등급 이상이면 외국어 1과목 면제

2026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

3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지난달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해외 대입에 활용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에서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를 필수로 응시하고, 선택과목은 외국어·역사·물리·화학·생물·지리·경제·법·정보·기술 등 9개 과목 중 2개를 고른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 한국어·영어·러시아어·프랑스어·중국어·독일어·일본어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총 4개 과목 성적이 반영되며, 과목별 10점 만점 기준 평균

한국어교육 주요 현황		
	전체	베트남
한국어 채택 현황	한국어반 운영	47개국, 2777개교
	정규 교육과정	24개국
	대학입학 활용	11개국
TOPIK 지원자수	56만6665명	8만5896명(국외시행 1위)
국내외국인 유학생 수	25만3434명	7만5144명(2위)

자료/교육부

5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해 학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근거해 운영된다. 시험은 초급 수준의 TOPIK I, 중·고급 수준의 TOPIK II,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TOPIK 말하기 평가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

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이다. 아울러 한국어교육은 전 세계 47개국의 정규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한 국가는 24개국, 대입에 반영한 국가는 11개국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작… 내달 17일까지

1학기 장학금 마지막 신청 기간
신입생·재학생 등 모든 학생 대상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3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번 1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이번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기간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된다.

2026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600

만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원), 4~6구간은 44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원), 7~8구간은 36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원), 9구간은 10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구간이 현행 10개 구간에서 5개 구간 체계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 와의 혼동을 줄이고,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2027년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15만원

취약계층 문화체육활동 지원

고양시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본격 시작했다. 시는 2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신청과 발급을 진

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체감 혜택을 높였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관광, 체육활동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인당 연간 지원금

이 기존보다 1만 원 늘어난 15만 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청소년기, 준고령기 등 해당하는 시민에게는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대상자에 따라 더 넉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엔저 계속에… 日 재무부 “다카이치, 엔저 이점 강조안해” 해명
▲ 中, ‘베이징·톈진·허베이 현대화계획’ 승인…
승안신구 개발 지속

/사진 뉴시스

서울교육청, 학년 초부터 말까지 교육 지원

신학년·학교급 전환기 맞춤 지원
교육과정·수업·평가 설계 도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기존의 학교 자율 기반 교육과정 운영 틀은 유지하면서도 2월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과 학년 말 '학교급전환기 교육과정'을 새로 결합해, 학년 시작부터 전환기 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년을 앞두고 2월 중 3~5일간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해 학교가 새 학년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학년 말에는 '학교급전환기 교육과정'을 추진해 학생들이 학교급 변화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는다.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에는 전 교직원이 함께 학교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새 학년 교육활동을 공동 설계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학년 초부터 '학생과 수업에 집중하는 달(3월)'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전년도 학교평가 결과와 교육 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기간과 연

수·협의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연간 교육과정·수업·평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수업·평가 혁신 연수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기초학력 강화 방안 논의 ▲전입 교원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년 말에는 초6·중3·고3을 대상으로 '학교급전환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교급 전환에 따른 학습과 생활 변화에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중학교 생활과 학습 환경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기 핵심 학습 요소를 반영한 40차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초6 담임교사 대상 연수도 함께 운영한다.

중학교 3학년은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순회강좌'를 운영해 진로·진학 불안을 완화한다. 또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7개 교과군 교수·학습 자료집을 개발하고, 전문성 강화 연수와 강의 동영상을 제작한다.

고등학교 3학년은 졸업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대학 생활 이해, 사회 적응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화성시, 4개 구청 체제… 생활권 행정 연다

만세·병점·동탄·효행 4구청
현장 밀착형 행정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체제인 4개 구청 체제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구청 체제 출범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화성특례시는 만세구·병점구·동탄구·효행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체계를 개편했다.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조례 제·개정과 조직 구성, 예산 편성, 청사 확보 등 구청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 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청 체제라는 의미도 담았다.

아울러 구청 체제의 핵심 가치로 '30분 행정서비스'를 제시하고, 생활 속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기보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개청식은 2월 2일 만세구청을 시작으로, 5일 병점구청과 동탄구청, 6일 효행구청 순으로 열리며, 이와 함께 4개 구청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화성특례시는 개청 초기 행정 공백과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출범 이후에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구청 체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뜸 /07:33 | 해침 /17:59

2월 4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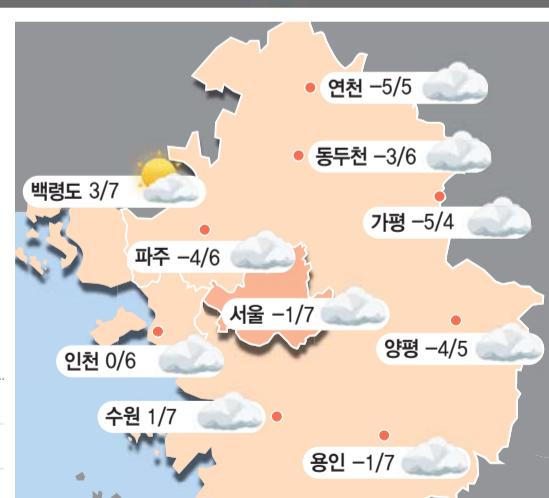
음력 : 12월 17일

수도권 날씨

-1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엔저 계속에… 日 재무부 “다카이치, 엔저 이점 강조안해” 해명
▲ 中, ‘베이징·톈진·허베이 현대화계획’ 승인…
승안신구 개발 지속

▲ 日연립여당 중의원選擧 후보 10명 중 9명 “핵 공유 검토해야”
▲ 두 얼굴의 베트남…美와 전쟁 대비하면서 무역 협상 양면 전술

▲ 러 외무부, 美 겨냥 “이란 공격 용납 못해…쿠바 위협 우려”
▲ 영국 前장관, 앱스타인에 경제정책 유출했나… 속옷 차림 사진도